



건전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문화 사회공헌활동(CSR)협약' 체결

한국주류산업협회는 2014년 1월 1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안전행정부와 '안전문화 사회공헌활동(CSR)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에는 네이버(주), 삼성서울병원, 한국주류산업협회, 한국화재보험협회, 한화그룹, 현대자동차(주), (주)KT, LG전자(주) 등 8개 기업·기관이 참여하여 정부-민간기업-협회-병원 등이 손잡고 무료 방문진료, 쪽방촌 지원,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산업 안전 캠페인 등 다양한 '안전문화' 협력 사업을 추진기로 했다.

'안전문화 사회공헌활동 협약'은 「모든 국민의 안전과 행복」이라는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적 책임활동이라는 점에서 기존 취약계층 중심의 사회복지시설 기부나 봉사활동과는 구분 된다.

협약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각자 관련 분야에서 안전행정부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협회는 2014년 봄·가을 행락철 음주산행 및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에는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안전행정부와 공동 실시하기로 세부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식에 참석한 권기룡 회장은 건전음주를 통해 우리 삶에서 술이 주는 순간을 즐기는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며, 청소년·임산부 음주 금지 및 음주운전 예방 홍보에 안전행정부와 더불어 더욱 노력할 것



을 강조했다.

협회는 지난 2013년 12월 20일 강남역과 26일 홍대앞에서 안전행정부와 공동으로 연말연시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시행한바 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협회가 준비한 홍보물(주차알림판, 물티슈) 등을 배포하고, 도로안전공단에서 준비한 음주운전 사고 사진을 전시하며 음주운전 예방을 홍보하였다.

특히 홍대앞 캠페인에서는 협회 권기룡회장과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도 함께 참여하여 대규모 홍보 행사를 진행하였다.



▼ 홍대앞 음주운전 체험 고글 및 시뮬레이션 자동차 시연

